

CEO 동정

호남고속철도 1호 고속열차 시승식



김광재 이사장은 8월 20일 현대대로템 창원공장에서 1년 4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료된 호남고속철도 제1호 고속열차 10량의 시승식에 참석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현장 등 강원본부 건설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8월 23일 원주~강릉 철도건설 현장 등 강원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강원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동해남부선 태화강~신경주간 전차선로직접설계 착수



<전차선로 설계구간 약도>



<직접설계 착수보고회>

기술분부는 동해남부선 태화강~신경주간(43.92km) 전차선로를 직접 설계하기로 결정하고 8월 23일 본격적인 착수에 돌입했다. 본부는 직접설계를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비 약 9억원을 절감(공사규모 약 300억원)하여 CEO의 경영방침인 '적정 설계·건설로 투자 효율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 책임기술자인 전철전력처 유헌복 차장은 8월 23일 전기철도기술사에 최종 합격함으로써 설계품질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철전력처는 이번 설계로 소규모 또는 지장물 이설 등에 국한하여 시행하던 직접설계를 1개 사업규모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장항선 2단계 개량 전철전력설비 기본설계 및 성남~여주 능서역 전력설비 실시설계 등 직접설계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기술본부 황선만 기자>

게시판

주요뉴스 ('13.8.26~'13.9.1)

- 호남선 KTX열차 광주서 관리 (광남일보01)
-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건설 약속지켜라" (영남일보10)
- 춘천~속초 등 동서고속화철도 대통령 공언 안통하나 (강원도민01)
- "GTX 동탄~삼성 구간 이르면 2015년 착공" (한국일보12)
- 부처 합동 '복지예산 낭비 감시팀' 만든다 (동아일보01)
- 소외이웃 나눔·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선도 (대전일보14)
- 사업비 다통에 ... 멀어진 KTX동탄역 개통 (중앙일보16)
- 구 광양역사 폐선 부지 도시 공원으로 탈바꿈 (전남일보10)
- "건설 산재, 발주기관도 책임져야" (동아일보14)
- 北 나진·선봉특구 한국도 개발 참여 (매일경제01)
- 나진-하산 철도프로젝트 투자도 저율매 (매일경제08)
- 멕시코 열차 탈선 최소 6명 사망 (세계일보15)
- 철도공단 원스톱 민원처리 개시 (충청투데이09)
-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안갯속' (강원도민02)
- 道 "내년 GTX사업, 780억 예산 반영" (경기일보04)
- 영주시 관동 중앙선 고가복선화 찬반 논란 (한국일보15)
- 공공공사 잦은 설계변경에 협세 3조6700억 낭비 (서울신문08)
- 興, 부처간 공약사업 떠넘기기 '군기잡기' (서울신문06)
- 물류단지 650만㎡ 2017년까지 추가 개발 (서울신문18)
- 철도시설공 '짚물' 경영 1조6000억 절감 (파이낸셜26)
- 호남KTX 허브 송정역사 건립 탄력 (광남일보01)
- "서대구 KTX역사 건립 당 차원서 지원해달라" (대구일보01)
- 공익신고자 보호대상 법률 넓혀야 (서울신문10)
- 75억弗 펀드 조성 해외건설 지원 (매일경제12)
- 철도시설공 추석맞이 사랑의 나눔 바자회 (대전일보16)
- 신창역 계단·여객통로 추가 건설 (국민일보10C)
- 건설업체 6년 만에 줄었다 (한국경제09)
- 코레일 관리역사 57% 승강장 이격거리 위반 (광남일보06)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개시

- 민원처리 시스템과 국민신문고
통합으로 서비스 강화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정부3.0 추진 정책에 따라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자체 민원 시스템으로 민원 처리하던 방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원스톱 처리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부 민원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모든 민원·국민 제안·정책 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경영지원실은 통합 민원처리 방식 도입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공단의 민원시스템으로 다시 접수하여 처리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력활동 및 민원사례 공개가 가능해 국민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영지원처는 전국의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용지보상, 진입로 관련 사항 등 연간 약 95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전도심 최대 난공사 흉도제지하보도 공사 완료

- 경부선 상·하 운행선 동시 공사 성공리에 마무리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8월 21일 경부고속 대전도심 3단계 구간 최대 난공사인 흉도제지하보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흉도제지하보도는 경부 상·하선을 동시 작업하면서도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로, 지난 4월 가설교량을 설치하고 7월에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여 8월에 가설교량을 다시 철거하는 공사에 따른 열차 운영 기관과의 협의 및 제한된 작업시간과 야간작업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1건의 사고나 열차 지연 없이 안전하게 완료했다.

장봉희 건설처장은 철저한 시공계획 수립, 모의작업 및 준비작업 시행,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수칙을 준수한 결과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장 처장은 또한 대전도심 3단계 최대 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운행선 변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

원주~강릉 철도건설 무사고 안전결의대회 개최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춘)는 8월 26일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제1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감리단, 시공사, 원주시청 관계자,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사무실 개소식과 무사고를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부 직원을 비롯한 7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의 후속착공구간(1~5, 11-1공구)의 공사현장 무재해 안전시공을 기원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2012년에 평창~강릉 구간 5개 공구를 착공한 데 이어, 7월 말부터 토지보상과 함께 원주~평창간 6개 공구와 강릉 시내 구간 1개 공구 등 7개 공구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 강원본부 변태윤 기자 >



호남본부, 시각장애인 위해 매주 봉사활동 실천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8월 27일 순천시 중앙로에 위치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순천지회'를 방문해 식재료 준비, 배식, 식당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힘든 기색 없이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으며, 포도와 복숭아 등의 과일도 전달했다.

본부는 2012년 여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인연을 맺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2~3명씩 꾸준히 식사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호남본부 한상우 기자 >



경조사

- 건설본부 일반철도차 문제우 부장 부친상 - 장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0-10
- 발 인 : 2013년 8월 29일 상생전자서초사육
-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신기화 처장 병부상 - 발 인 : 2013년 8월 29일
- 경영지원실 이인택 처장 장녀혼 - 발 인 : 2013년 9월 7일 오후 16시
- 서울대 교목재단 오왕교 처장 장녀혼 - 장 소 : 서울 광진구 자양동2-2
- 발 인 : 2013년 9월 7일 오후 17시